

PVC, 중국수요 감소 35달러 하락

CFR FE Asia 740-750달러 형성 ... 유럽은 890달러로 50달러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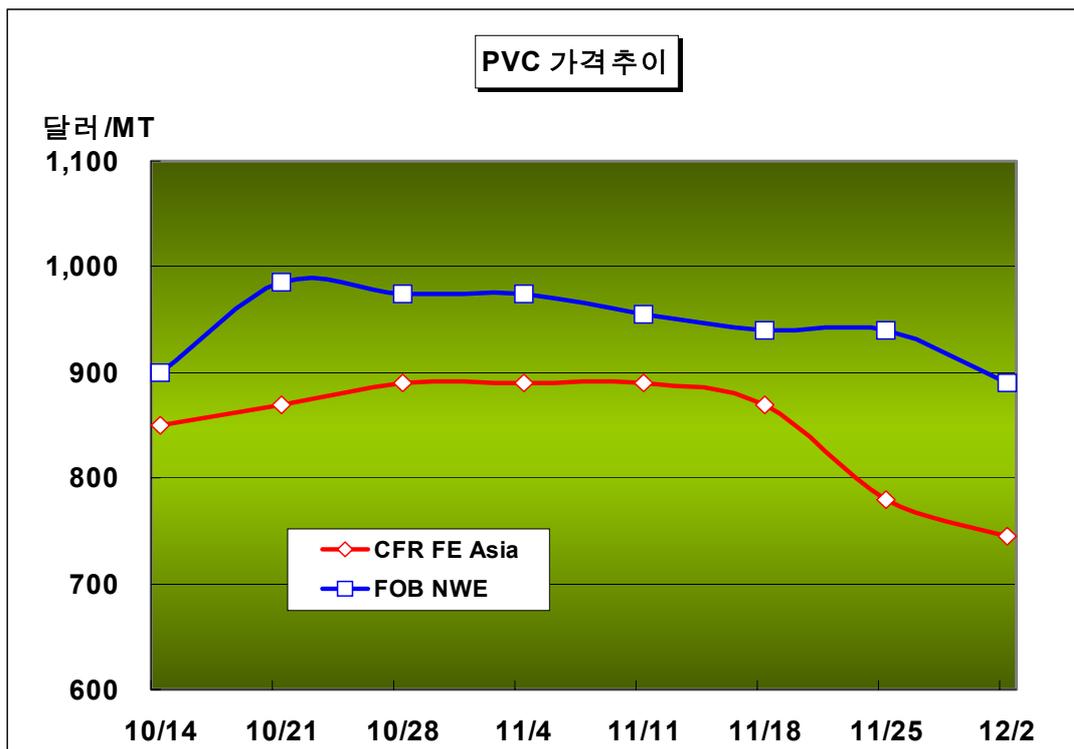
PVC(Polyvinyl Chloride) 가격은 11월30일 CFR FE Asia 톤당 740-750달러로 35달러 하락했다.

아시아 PVC 시장은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에틸렌(Ethylene) 가격하락과 중국의 수요 감소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국제유가는 12월2일 서부텍사스중질유(WTI) 선물가격이 배럴당 59.32달러로 전일대비 0.85달러, Dubai유 현물가격이 배럴당 52.69달러로 전일대비 1.28달러 상승했으나 에틸렌 가격은 12월2일 FOB Korea 톤당 695-705달러로 25달러 하락했다.

중국 내수가격은 Hebei, Shandong, Beijing 기준 에틸렌 베이스가 톤당 6300-6500위안, 카바이드(Carbide) 베이스가 톤당 6100-6200위안을 형성했고 Shanghai, Zhejiang, Jiangsu 기준 에틸렌 베이스가 톤당 6300-6600위안, 카바이드 베이스가 톤당 6200-6300위안을 기록해 동부지방의 가격이 화북지방의 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가격은 CFR SE Asia 톤당 760-770달러에 마감됐다.



한편, 유럽의 PVC 가격은 11월30일 FOB NWE 톤당 880-900달러로 50달러 급락했다. <김건우 기자>

<화학저널 2005/12/06>